

추첨승 태극특장쌍쓰리·뒤집기 에슬레틱스 '4강'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광일리그 4강팀 확정

16일 무등리그 준결승

페가수스-자연환경 격돌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결승에 도전할 4팀이 확정됐다.

9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무등기 5라운드 경기가 펼쳐졌다. 광일리그 8강전으로 치러진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앞선 4라운드에서 먼저 준결승 고지를 밟은 카뮈진남V-KOOL과 함께 태극특장쌍쓰리·에슬레틱스·W웨딩컨벤션이 광일리그 4강 팀에 이름을 올렸다.

태극특장쌍쓰리는 행운의 추첨승으로 4강 고지를 밟았다. 1회 베이스를 상대로 선취점을 낸 태극특장쌍쓰리가 2회 1-1 동점을 허용하는 등 팽팽한 승부가 계속됐다. 태극특장쌍쓰리는 5-4로 앞서 6회초 공격에서 득점에 실패한 뒤 6회말 5-5 동점을 허용했지만, 시간제한에 따른 추첨(6-3)을 통해 4강행 행운을 차지했다.

에슬레틱스는 화끈한 화력으로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케네디스코어를 12-4, 5회 콜드로 꺾었다. 1회 선취점을 낸 에슬레틱스가 이어진 수비에서 1-2 역전을 당했다. 하지만 2회 볼넷 에슬레틱스는 3회 대거 7점을 뽑아내면서 전세를 뒤집었다.

W웨딩컨벤션도 매서운 창과 막강한 방패로 레드위리어스를 상대로 8-0, 5회 콜드승을 거뒀다. 3

◆5라운드(광일리그 8강전)	
◇1경기(6회 시간제한)	
태극특장쌍쓰리(추첨승)	103010-5
베이스	011111-5
◇2경기(5회 콜드)	
에슬레틱스	11703-12
케네디스코어	20110-4
▲승리투수:김경태	
◇3경기(5회 콜드승)	
레드위리어스	00000-0
W웨딩컨벤션	12014-8
▲승리투수:김경호	

회를 제외하고 매 이닝 주자들이 홈을 밟으면서 5회까지 8점을 만든 W웨딩컨벤션은 김경호의 호투 속에 레드위리어스의 발을 묶으면서 4강행을 확정했다.

오는 16일에는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무등기 준결승전 두 경기가 진행된다. 페가수스와 자연환경이 준결승전 첫 경기를 치르고 재규어스와 타요바리스타즈도 대망의 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한편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도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과 함께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9일 광주일고 구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 토너먼트 에슬레틱스와 케네디스코어 경기. 3회초 좌전안타로 진투한 에슬레틱스 서기선이 2루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범호 “고척으로 복수하러 간다” 양현종 “전광판 빼고 잠실은 우리것”

KIA-LG 와일드카드 결정전 출사표

“고척으로 복수하러 가겠다”는 KIA 이범호와 “빨리 끝내서 먼길 가시는 데 조심히 내려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LG 류제국.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9일 잠실구장에서 KIA와 LG의 사령탑과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미디어 데이 행사가 진행됐다. KIA는 김기태 감독과 주장 이범호, 양현종이 행사에 참가했다. LG는 양상문 감독과 주장 류제국, 박용택이 자리를 해 ‘가을 잔치’를 앞둔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김기태 감독은 “우리는 1패를 허락 끝났기 때문에 전력을 총동원해 게임을 하겠다. 모레까지 야구하는 게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다. 즐겁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상문 감독은 “모든 스포츠인들은 승부에 들어오면 다 이기고 싶어한다. 오랜만에 LG와 KIA가 만나는 만큼 재밌게 맞이해 해야한다. 좋은 플레이가 맛있는 플레이로 경기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됐지만 ‘적’으로 승리를 향한 빼앗는 말들을 주고받기도 했다.

“양팀 선수들 모두 긴장을 할 것이다. 긴장을 안하고 먼저 치고 나가는 선수가 나오는 팀이 이길 것이다. 그게 타이거즈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이범호는 “LG전도 중요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면 (준플레이오프 때문에) 광주로 못 가기 때문에 고척돔에 가려고 반팔티랑 챙겨왔다. LG가 좋은 팀이지만 꼭 이겨서 고척으로 (넥센에) 복수하러 가겠다”며 2연승의지를 밝혔다.

류제국은 이범호의 발언에 맞서 “빨리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끝내서 먼길 가시는 데 조심히 내려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수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양현종도 특별한 각오를 밝혔다. 양현종은 “원정팀이라서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LG팬도 많지만 우리 KIA팬도 많다. 전광판만 LG 것이지 (경기장 분위기가) 우리 것이나 다름없다”며 “홈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광주에서 다시 야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꼭 지키고 싶고, 지켜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원정 유니폼인)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반드시 하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 편하게 광주로 내려갈 것이니까 기다려주라”고 포부를 언급했다.

박용택은 “광주에서 했으면 졌을 것이다. 올 시즌 홈경기 승률이 좋다. KIA와 LG가 2002년 이후 처음 만나는 데 당시 시리즈 MVP가 된 좋은 기억이 있다. 그냥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유가 없다”며 “올 시즌 (1차전 선발인) 헥터에게 재미를 봤다. 내심 현종이 말고 헥터가 나오라고 기대했다”고 1차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9일 잠실야구장에서 '2016 타이거뱅크 KBO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양 팀 감독 및 선수들이 예상경기 점수차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KIA타이거즈 양현종, 이범호, 김기태 감독, LG트윈스 양상문 감독, 류제국, 박용택. <KIA타이거즈 제공>

헥터-허프 '운명의 1차전' 선발 격돌

‘에이스’ 헥터가 타이거즈의 운명을 지고 마운드에 오른다.

10일 오후 6시30분 잠실구장에서 2016 정규시즌 5위 KIA 타이거즈와 4위 LG 트윈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린다.

KIA는 1차전 승리를 거둬야 2차전을 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무승부를 기록해도 KIA의 가을야구가 끝난다. 2연승을 해야 준플레이오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살얼음 승부에서 ‘특급 외국인 선수’ 헥터가 LG 허프와 운명의 건 대결을 벌인다.

헥터는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지난 2일 kt전에서 완투승과 함께 15승·200이닝을 동시에 찍었다. 기록 없는 피칭과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3.40의 평균자책점을 남긴 그는 206.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피홈런을 단 7개만 허용하는 등 좋은 활약을 하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LG에는 조금 부진했다. 4차례의 맞대결에서 26이닝 동안 32피안타(1피홈런) 9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4.15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2패를 기록했다.

LG는 좌완 허프에게 1차전을 맡겼다. 시즌 중반 LG 유니폼을 입은 허프는 13경기에서 3.13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2패를 기록했다. KIA를 상대로는 두 경기에 나와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두 경기에서 14.1이닝을 2실점으로 처리하는 등 KIA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KIA 헥터



LG 허프

KIA는 투수 12명, 야수 16명으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를 꾸렸다. LG는 투수 10명, 야수 18명으로 엔트리를 구성하면서 야수 쪽에 무게를 뒀다.

젊은 투수들이 이끄는 LG 불펜과 달리 KIA는 관록의 불펜이다. 프로야구 최고참 최영필과 마무리 임창용과 김광수, 고효준, 김진우, 윤석민 등 베테랑이 대기하고 있다. 올 시즌 무서운 성장세를 보인 한승혁, 홍건희와 함께 김운동도 극적으로 엔트리에 합류했다. 대신 한화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부진했던 좌완 심동섭이 엔트리에 제외됐다.

한승택과 이성우로 포수 두 자리를 구성하면서 이흥구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뛸 수 없게 됐

다. 군대에서 돌아온 안치홍-김선빈과 함께 정규시즌을 이끈 또 다른 ‘키스톤 콤비’ 서동욱-강한울도 맹장수술과 허리부상에서 회복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손가락 부상에서 회복된 노수광도 가을잔치에 초대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28명)

▲투수 : 임창용 최영필 윤석민 지크 고효준 한승혁 헥터 홍건희 김운동 양현종 김광수 김진우 ▲포수 : 이성우 한승택 ▲내야수 : 김선빈 서동욱 안치홍 강한울 이범호 김주형 고영우 필 ▲외야수 : 신종길 김주찬 나지완 이호신 김호령 노수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하나 LPGA 3승

푸른 챔피언십 17언더파

장하나(비씨카드)가 7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3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장 하나는 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미라마르 골프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푸른 대만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장 하나는 2위 평산산(중국)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장 하나는 지난 2월 코츠 챔피언십, 3월 HS-BC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지 7개월 만에 개인 시즌 3승을 이뤘다. 장 하나의 우승으로 한국은 LPGA 투어 최근 3개 대회를 휩쓸었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하이트진로), 레인우드 클래식 정상에 선 김민경(한화)에 이어 장 하나가 태극남자 우승 릴레이를 이뤘다.

장 하나는 전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 골라내며 단독 선두로 우승 문턱에 섰다. 이날 4라운드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2번홀(파5), 5번홀(파4), 6번홀(파5)에서 버디 행진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7번홀(파3)과 9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 주춤했다.

그 사이 평산산은 15번홀(파4)에 이르기까지 버디를 6개 잡아내며 무섭게 추격했다. 마지막 18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1타 차로 따라잡았지만 장 하나는 침착했다. 후반 9개홀을 모두 파로 막아내며 이날 6언더파(버디 7개, 보기 1개)를 친 평산산의 추격을 무력화하고 우승을 확정했다.

장 하나에게 몸과 마음의 짐을 날려주는 우승이다. 그는 지난 3월 HSBC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기 전 일어난 사고로 전인지와 신경전을 받아야 했다. 장 하나의 아버지가 싱가포르 공항 에스컬레이터에서 놓친 가방에 전인지가 부딪히면서 한 달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이른바 ‘공황 가랑 사각’이다.

구설에 오른 장 하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 휴식과 회복을 위해 한 달 이상 투어 활동도 중단했다. 6월 이후 LPGA 투어 8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톱 10에 2번밖에 오르지 못하는 등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되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날 우승으로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

김효주(투데)는 이날 3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공동 3위에 올랐다. 박희영(하나금융)은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세계랭킹 1위이자 지난해 우승자인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공동 20위(3언더파 285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